

장백산천지

제 322 호

2018 년 3 월 11 일 일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온 새해축복

[밍후이왕]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인 2018 년 2 월 18일, 눈부신 햇살 아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침 일찍 뉴욕 브루클린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상거점에 도착해 현수막을 걸고 진상 자료를 준비했다. 오늘은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차이나타운인 브루클린 8 번 애비뉴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 축제의 날’로 파룬궁수련생들이 현지 고향 사람을 축복하고 3 퇴(중국공산당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권하는 좋은 날이기도 하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새해에 일부러 색색의 수소 풍선을 준비해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사람들은 잇따라 모여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풍선을 가져갔다. 풍선 한 쪽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가 한쪽에는 ‘쩐싼런하오(真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가 쓰여 있었다. 풍선은 눈에 잘 띄었다. 풍선을 가져갈 때 수련생들은 잘 묶어주면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우라고 하면서 파룬따파는 불가의 고덕대법이라고 알려주었다. 꼭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하늘이 복을 내린다’를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최신 대기원 특간 ‘공산주의 최종목적’을 나눠 주면서 돌아가 잘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왜 ‘3 퇴’ 해야 하는지를 알고 진상을 알면 진짜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었다.

아침 10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파룬따파 부스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8 번 애비뉴 50 번가에서 60 번가까지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화려한 차림으로 나섰다. 공연을 보고 쇼핑을 하면서 떠들썩하게 설을 쇠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가 쓰여 있는 풍선들뿐이었다.

아이들은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우기 아주 좋아했다. 큰 아이가 외운 후 작은 아이에게 가르쳐주었다. 아직 이 갈이를 하는 한 남자 아이는 온 얼굴에 미소를 짓고 따라 읽었고 어머니는 열심히 귀뜸해 주고있었다. 두 소년이 풍선을 달라고 하자 수련생들은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두 소년은 아주 기뻐하며 큰소리로 ‘파룬따파하오’라고 외쳤다. 한 여성이 풍선을 달라고 하여 수련생이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파룬궁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당일 ‘3 퇴’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수련생은 한 젊은 어머니에게 ‘3 퇴’를 말했다. 젊은 어머니는 기뻐하며 “탈퇴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탈퇴했습니다.”라고 했다. 잘 차려 입은 한 여성은 유모차를 밀고 풍선을 가지러 왔다. 수련생이 그녀에게 소년선봉대와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수련생이 그녀에게 “당원은 아니시죠?”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즉시 “당원입니다.”라고 말했다. 수련생이 그녀에게 당원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알려주자 흔쾌히 대답하고 최신 파룬궁 진상책자를 받았다.

이날 1 명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했고, 18 명이 공청단과 소선대를 탈퇴했다. 223 명이 소선대에서 탈퇴해 모두 242 명이 ‘3 퇴’에 동의해 중국공산 악당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



■ 즐거운 분위기가 흘러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법(大法)의 상서로운 빛은 집집마다 비친다. 2018 년 음력설기간 파룬따파(파룬궁) 제자들은 크고 작은 거리에 각종 ‘쩐싼런하오(真善忍好)’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란 현수막을 붙여 민중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대륙 관광객 마카오에서 파룬궁의 진상을 알다



[밍후이왕] 2018년 2월 16일~19일, 중국 설날 연휴에 많은 중국 대륙 관광객이 대륙의 각 성시에서 따뜻한 마카오에 와서 설을 보냈다. 마카오 파룬궁수련생들은 설날 휴가를 이용해 마카오의 상징 성바울 성당(Ruins of St. Paul)과 성 도미니크 성당 앞의 변화한 보행자거리에서 진상을 알렸다. 마카오 시민, 중국 대륙 및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국공산당을 폭로했고 동시에 대륙 국민을 도와 공산당, 공청단 및 소선대의 조직에서 탈퇴(약칭 삼퇴)하는 것을 도와줬다. 많은 중국 대륙 관광객들은 걸어가면서 현수막을 보고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쳤고, 파룬궁수련생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기도 했다. ◇

[밍후이왕] 2018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남안전람센터에서 올해의 '심신건강 축제'를 맞이했다. 이왕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의 부스에는 심신건강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어떤 사람은 지체 없이 수련생에게서 파룬궁을 배웠다. 많은 사람이 부스의 순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저는 모퉁이를 지날 때부터 파룬궁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한 갈래 에너지가 저의 전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럴듯 상서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룬궁수련생에게서 파룬궁이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정황을 듣고서 분개를 표시하면서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브리즈번 건강축제, 민중들은 파룬궁과 인연을 맺다



연변 박해소식

지린성 예벤 투먼시 잔페 파룬궁수련생 이경자가 받은 박해 상황

2018년 2월6일 오후 3시전 투먼시 국보대대 경찰 전용철,정문용, 그리고 무장경찰 한명과 낮모를 경찰등 5명이 예벤 투먼시 잔페인 파룬궁수련생 이경자의 집에 왔다. 그때 이경자는 마침 집에 있지 않았기에 아들이 문을 열어 주었다. 이경자가 집에 돌아왔을때 전용철이 이경자를 보더니 진상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뒤져보았다. 텔레비를 켜보더니 신탕런을 안장한것을 보고는 텔레비와 상우에 놓여있던 《전법륜(转法轮)》책과 전자책, 그리고 개인핸드폰등을 가져가려했다. 그러면서 이경자더러 물건 명칭을 써놓고 서명하라고 했지

만 그녀는 하지 않았다. 이때 그녀의 아들이 "우리 엄마를 붙잡아 가지 마십시오 그러기만하면 내가 대신 서명하겠습니다."고말했다. 그들이 그렇게한다고 대답하자 엄마의 제지도 마다하면서 "설도 오래지 않는데 엄마를 위해서 저는 서명해야 됩니다."라고하면서 서명했다.

전용철이 전화하자 경찰차와 여러명 경찰이오더니 위의 물건을 가져갔고 이경자도 국보대대로 신고가서 저녁 9 시까지 신문했다.(주요하게 누가 신탕런을 안장해 줬는가를 물었다)

이경자가 말하지않자 그를 투먼시병원에 데려가 신체검사를 했

다. 신체검사전 그에게 무슨약을 주었다. 신체검사에서 심장이 좋지않고 혈압도 아주 높았다 (제일 높을 때 210 까지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용철, 정문용, 오기룡등은 이경자를 차에 싣고 룡정구류소에 갔는데 구류소에서 받기를 거절하자 그날밤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튿날 이경자는 국보대대로 자기물건 찾으러 갔다.경찰이 그의 개인 핸드폰만 돌려주고 텔레비는 이후에 준다고 했다. 그후 그녀는 이를 연속 또 찾아갔는데 대대장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 대대장은 전용철이라고 했다. 현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 ◇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눈물로 설을 쇠었던가?

[밍후이왕] 새해가 다가왔다. 설이 되면 집집마다 모두 초롱을 달고 오색 천으로 장식하며 즐거운 설 맞이 준비를 한다. 나는 매년 명절을 맞을 때마다 미어지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다. 중국사당(邪黨)의 박해로 산산조각이 나서 파탄된 가정이 하나하나 눈앞에 떠오른다.

랴오닝성 링위안시 샤오청쯔향 샤오장쯔촌에 들어서면 파손된 집 한 채를 볼 수 있다. 지붕에는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집안도 이미 여러 곳이 허물어져 있다. 얼룩덜룩 녹이 쓴 철 대문을 열면 삐걱 소리를 내며 우선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길 넘게 자란 잡초와 굵은 나무뿐이다. 이처럼 처량한 정경은 우리를 향해 4 식구가 살았던 한 가정의 비참함을 고소하고 있는 듯했다. 이 집의 주인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다. 남자주인 류톈위안(劉殿元)은 올해 80 세다. 그는 촌의 의사이자 교사이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에 납치되어 1999년 9월부터 7년간의 감옥살이와 4년 반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1월에 재차 납치됐다. 류톈위안은 77세 고령으로 랴오닝성 쟈핑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11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 집의 여주인 류위팡(劉玉芳)은 61세의 평범한 농촌 가정주부다. 그녀 역시 중국공산당에 납치돼 3년 노동교양 처분으로 감금당했으며, 또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때 16세인 딸도 새해 전 엄마와 함께 납치돼 감금됐다가 풀려난바 있다. 후에 압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과 동생의 생계를 위해 중임을 짊어졌다. 그때 14세 된 아들은 타 지역인 링위안시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겨울 방학에 집에 돌아와서 썰렁하고 텅 빈 집을 보고서 그제야 엄마와 누나마저 잡혀갔



파룬궁수련인 자오수위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14세밖에 안된 아이가 의지할 데 없이 절망스러운 그 심정은 얼마나 처량했겠는가! 중공 장쩌민 집단이 자행한 파룬궁박해 18년 이래, 하나 하나의 전대미문의 억울한 안건, 박해로 망하고 산산조각난 모든 가정의 하늘땅이 통곡하는 피눈물의 공소에 사람들이 경악한다! ◇ 글/ 미전(覓真)



중공 대중매체 신화사통신사장 텐총밍 악업으로 사망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중공) 관영매체는, 신화사통신사장 텐총밍(田聰明)이 병사했다고 보도했다. 텐총밍은 사망수치가 높은 독감으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친인척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중국속담에 “참외 씨앗에서 참외가 나고, 콩 씨앗에서는 콩이 나거늘, 남에게 원한을 준 자는 그 씨앗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민요가 있다.

텐총밍의 조사된 이력에 의하면, 74세 남자, 산시성 푸구현 사람으로 2000. 6~2008.3월까지 신화사통신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줄곧 장쩌민 집단을 따라 파룬궁(法輪功)을 비방하는 보도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국민들이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오도해 부추겼다. 2000.1~2003.10월까지 짧은 기간

에 파룬궁을 모략하고 비방하는 기사를 522건이나 보도했다. 특히 2001. 1. 23. 천안문 광장에서 연출한 이른바 ‘파룬궁수련인 분신자살 조작사건’은 장쩌민 집단이 연출한 의문투성이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사통신이 악의적으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보도를 해, 중공이 파룬궁을 더욱 과격하게 박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 보도를 해주었다. 당시 텐총밍 신화사통신사장은 그 ‘분신 조작사건’을 연출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신화통신 본사기자 왕레이밍(王雷鳴)은 1999. 7. 30. ~ 2003. 12. 14.에 걸쳐 파룬궁을 비방하는 기사를 26건이나 보도했다. 그는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의 진상을 감추며 파룬궁수련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했는데, 중국공산당이 불

법적으로 파룬궁수련인을 납치, 감금, 세뇌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며 파룬궁수련인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비인간적인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선생이 학생을 대하듯” 한 것이라고 미화했다. 또 신화통신 저장(浙江)지사 기자 장치즈(張奇志), 장허핑(張和平) 등은 2003. 7. 14. 저장에서 발생한 ‘노숙자 독살사건’을 파룬궁수련인과 연관시키는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이다.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모두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심을 높여주는 심신수련법임으로 당연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표창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그렇게 좋은 파룬궁수련인을 체포, 감금, 기소하여 유죄판결로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워 모든 중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해주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적시된 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공의 장쩌민 집단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인에 대한 박해는 선악을 바꿔 놓았으며, 도덕심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률제도를 무참히 짓밟아놓은 것이다. 중국사회는 중공이 지향하는 '가짜, 악, 투쟁'만 있을 뿐 도덕이 몰락해 부정부패가 만연해 중

국사회가 타락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중국 전 국민에게 가해진 박해인 것이다.

중공의 파룬궁박해과정에서 신화 사통신사의 수많은 종사자들은 도덕심은 물론 직업적 윤리도 상실한 채 뉴스의 공정성, 객관성은 물론 긍정적 지향성마저 저버리고, 오직 파룬궁을 비방하도록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만 집중해 사악한 중국공산당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고금을 통해 불법(佛法)을 비방하고 수련인을 박해한 것은, 그 죄가 너무 커서 반드시 천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세음보살상의 흉부를 도끼로 찍어 버린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시영

(柴榮)도 결국 흉부의 악창(惡瘡)으로 39 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중앙 CCTV 뉴스 논평부주임 겸 '동방시공(東方時空)' 주임인 천명(陳虻)은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의 주요 제작자였다. 그는 2008 년 초 위암과 간암으로 9 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빨리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08. 12. 23. 47 세에 베이징 암 병동에서 사망했다.

인간 세상에 업보가 있는 것은 인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업은 그 죄를 갚는 한 수단의 과정일 뿐이며, 그 최악의 대가는 자자손손 이어질 것인데, 생생세세에 모두 갚을 수 없을 것이다. ◇



‘파룬따파 하오’를 성심으로 외워 구사일생으로 살어나다

[밍후이왕] 나는 셋째 사촌 형의 조문을 갔을 때 친구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줬고,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 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다)’를 외우면 위험이 닥칠 때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때 둘째 사촌 형의 큰아들이 말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매일 외우고 있어요.”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몇 년 전에 그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말했다.

둘째 사촌 형의 큰아들은 아주 선량하다. 그는 대법 제자들이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면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중공의 부속 조직인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했고, 대법제자가 준 호신부를 돈지갑에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갖고 다녔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먼저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외웠다. 이때부터 그의 장사는 점점 더 번창해졌고, 매년 수입이 20 여만 위안(약 3500 만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경제가 낙후한 농촌에서는 아주 높은 수입이다. 그는 또 한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재난을 면하게 되었다.

장사하는 그는 자주 외지에 가서 상품을 가져왔다. 그 당시 그는 개인차가 없었기에 남에게 부탁해 물품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외조카에게 부탁했다. 외조카가 차를 운전하고 그는 조수석에 앉았다. 하늘에는 뜻밖의 풍운이 있다. 그들이 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옆으로 뒤집어지면서 강물에 추락했다. 차는 강에 쌓인 진흙에 측면으로 내리꽂혔다. 운전기사가 위에,

그는 밑에 깔렸는데 그는 차에서 기어 나와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외조카는 즉석에서 사망했는데 그는 기적같이 살아났다.

교통경찰이 와서 차를 들어 올릴 때 그는 경찰에게 자신은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차에서 기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가능해요? 만약 운전기사가 살았다고 하면 그래도 가능하지만, 당신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절대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는 말했다. “저는 정말 차 안에서 기어 나왔어요. 제 말은 진짜입니다.” 교통경찰은 그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자 그에게 몸에 무엇을 간직했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돈지갑에 파룬궁 호신부가 있어요.” 당시 호신부는 판지에 인쇄된 것이었다. 그가 호신부를 꺼내서 보니 호신부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고 축축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것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다.

모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다. 원래 그가 매일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외웠기에 복을 받은 것이고, 파룬궁 사부님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진상을 안 후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이 답답한 놈아, 이 좋은 것을 왜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조카도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날 손님이 90 명 넘게 있었는데 진상을 안 후 잇따라 모두 삼퇴를 했다. 나는 90 명의 삼퇴 명단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 글/ 대륙 파룬궁수련생